

# 여수 거문도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예고  
해저통신 시설·삼산면 의사당 등  
역사·문화·건축적 가치 매우 높아



여수 거문도 '거문마을' 일원이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 예고됐다. 거문도 내항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 거문도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여수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거문도의 '거문마을' 일원이 지난 11일자로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예고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삼산면 거문리 35의 104필지(2만6610㎡)로, 거문도 사건 등 여수지역 해양 도시 근대생활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또 영국군이 머물렀던 거문도 내항, 근·현대기 상거주택, 영국군이 개발한 큰 섬, 근대 의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옛 삼산면 의사당 등 그 당시의 마을 평면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역사·문화·생활·건축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거문도 사건 당시 거문도에서 중국 상해까지 연결한 통신케이블인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 시설'과 1959년 준공돼 현재 삼산면 의회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은 조창기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록 예고된 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2022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 선정, 문화재 등록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으며 최종 등록 후 문화재 보수정비, 교육·전시·체험 공간 조성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거문리 일원이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역사·문화·관광이 함께하는 명소로 조성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섬 문화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서 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 '스페이스 브릿지' 순천 랜드마크로 급부상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 브릿지'. <순천시 제공>

## 꿈의다리 리뉴얼 호평 이어져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로 들어선 '스페이스 브릿지'가 지역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7일만에 관람객 21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꿈의다리를 리뉴얼한 '스페이스 브릿지'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10년전 설치됐던 강익중 작가의 꿈의다리는 컨테이너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누수, 탈락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형태로 존재하는 14만여 점의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하

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 브릿지 내부에 기존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

스페이스 브릿지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꿈의다리의 작품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작품 훼손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명칭처럼 아이들의 꿈이 우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해 순천을 찾아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더라도 확 달라진 국가정원을 만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시, 장애인 쉼터 '뜨락' 개소



## 둘레길 탐방 등 운영 프로그램 다양

광양시가 지난 11일 지체장애인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장애인 쉼터 '뜨락'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임형석·박경미 도의원, 광양시의원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장애인 쉼터 뜨락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쉼터는 광양읍 소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 지회 부지 내에 시비 2억 6000만원을 들여 62.55㎡ 규모로 교육·휴게·상담실 등의 공간과 편의시설로 조성됐다.

쉼터 뜨락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

회에서 운영한다. 장애 특성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컸던 장애인들이 교육과 정보공유,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공간이다.

뜨락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과 함께 ▲꽃꽂이 수업 ▲장애인식개선교육 ▲둘레길 탐방 ▲자연친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쉼터 개소를 축하하고 장애인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교육기관이자 때로는 편하게 쉬는 사랑방으로 사랑받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천년의 역사 속으로' 구례 군민의 날 행사

18~20일 남악사·공설운동장 일원...전시·체험·공연 등 다양

구례군이 18일부터 20일까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주제로 '제80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를 남악사, 화엄사 시설지구,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남악제와 시가행진,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 전시·체험, 경연 등 4마당 31종목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18일 남악사에 백일장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시전 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군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본선 진출자의 경연이 펼쳐진다.

이어 제33회 전국 정가 시조경향대회는 전국의 시조 명창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한다.

19일 오전 10시 천 년의 역사 동안 국태민안과 사회연풍을 기원한 남악제가 남악사에서 봉행되고, 이후 장죽전 녹차 시배지에서 현공다례가 진행된다.

화엄사 시설지구에서는 문화예술공연, 숨어있는 장사를 찾아낼 길거리 (초등대항) 씨름대회, 읍면 (초등대항) 웃놀이, 읍면 농악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 차 시음회, 전통 떡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한지공예 전시, 한국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등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섬진아트홀에서는 오후 4시부터 북한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백두한라예술단의 공연이 열리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는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20일은 군정 광장에서 구례공설운동장까지 시가행진이 펼쳐지고,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읍·면별 입장식과 축구,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각종 체육 경기와 한궁 시범 경기가 열린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보성군, 인력난 해소 나선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추진

참여 농가·참여자 상시 모집

보성군이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4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 지역 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인 이 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었다.

연간 구인 구직 연계 3500건을 목표로 논·밭작물 및 과수, 특용작물 재배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농식품기업 등 지역 농가와 농식품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 나선 계획이다.

근로자와 농가가 연계되면 보성지역 외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약 3만5000원을 지원한다. 농가에는 중식비와 간식비 1만2000원, 농산물 제조 가공 기업에는 4대 보험 실비를 참여 인원 1인에 대해 1일 기준으로 각각 지급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조성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성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성의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성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성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